

제11권 7호

2021. 3. 29~2021. 4. 11



하나금융그룹

하나금융 포커스

Bi-Weekly Hana Financial Focus

- | | |
|---------|---|
| 논단 | 마이데이터 및 가상자산의 부상과 제도화 |
| 이슈분석 | 코로나 이후 노동인구 지형도 변화 |
| 금융경영브리프 | 라인, 디지털뱅크 통한 아시아 소매금융시장 진출 확대
답페이크, AI 기술발전이 가져온 부작용 |
| 금융시장모니터 | 금 리: 분기말 이후 장단기 금리차 확대 예상
외 환: 지연되는 유로존 경기회복과 강달러 재개 |
| 금융지표 | 국내 금융시장
해외 금융시장 |

인간

연구자는 사람⁺, 고객은 사람⁺⁺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사람을 바꿔야 합니다.

현실에 기초한 진지한 연구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창조하는 것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사명입니다.



집필진

편집

연구위원 윤병수(hybs)
연구원 김효섭(hyosupk)

이슈분석

연구위원 박상현(parksanghyun)

금융경영브리프

수석연구원 김지현(jihyunkim)
수석연구원 황성영(sungyoung.hwang)

금융시장모니터

금 리 | 수석연구원 김수정(sjkim1771)
외 환 | 연구원 윤지선(jisun.yun)

금융지표

연구원 최제민(jeminchoi)

하나금융 포커스

Bi-Weekly Hana Financial Focus

- 01 **논단** 마이데이터 및 가상자산의 부상과 제도화
- 04 **이슈분석** 코로나 이후 노동인구 지형도 변화
- 08 **금융경영브리프** 라인, 디지털뱅크 통한 아시아 소매금융시장 진출 확대
답페이크, AI 기술발전이 가져온 부작용
- 12 **금융시장모니터** 금 리: 분기말 이후 장단기 금리차 확대 예상
외 환: 지연되는 유로존 경기회복과 강달러 재개
- 16 **금융지표** 국내 금융시장
해외 금융시장

마이데이터 및 가상자산의 부상과 제도화*

김 상 진 연구위원(sjkim@hanafn.com)

최근 금융산업과 시장의 주요 화두는 마이데이터와 가상자산이다. 마이데이터 기업은 체계적 자산관리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고, 가상자산 사업자는 지난 3월 25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계기로 제도화를 기대하고 있다. 신생 마이데이터 기업은 기존 대형 플랫폼과 별개로 서비스 활성화가 필요한데 소비자의 서비스 활용에 따른 보상 측면에서 가상자산 활용을 검토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가상자산 규제가 보다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

:: 마이데이터와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 확대

최근 금융산업과 시장의 주요 화두는 마이데이터와 가상자산이다. 새로운 금융산업인 마이데이터는 2020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통과된 이후 2021년 8월 본격적인 서비스 시행이 예정되어 있다. 가상자산은 글로벌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시장의 주요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난 3월 25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의무가 도입되었지만, 글로벌 차원에서는 은행의 가상자산 수탁,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결제 등으로 규제가 정립되는 모습이다. 이에 PayPal, BNY Mellon 등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시장 진입, Tesla 등 상장사의 비트코인 매입이 이어지고 있으며, 가상자산이 대체투자의 대상 중 하나임을 반증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이데이터와 가상자산은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내 마이데이터 산업의 진행 상황을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지난 2021년 1월 정책당국의 28개 기업에 대한 마이데이터 본허가 승인 이후 마이데이터에 대한 관심은 실제 서비스가 어떻게 구현될지에 쏠리고 있다. 마이데이터 기업은 어떠한 편의를 소비자에 제공하게 될까? 정책당국은 기존 금융회사 중심의 단편적 금융상품 추천이 생애 전반의 재무관리로, 단순 맞춤형 상품 추천이 머신러닝 등을 기반으로 한 고도화된 추천 방식으로 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정책당국은 안정적인 마이데이터 서비스 운영을 위해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 발간과 지원센터 개소 등을 추진하고 있다.

마이데이터와 가상자산, 금융산업의 주요 화두로 부상

마이데이터에 대한 관심은 인허가에서 서비스 활성화로 변화

*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으로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마이데이터 서비스 차별화 요소로서의 가상자산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차별화 여부가 관건

그런데 마이데이터 시행으로 고객이 실제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까? 현재 마이데이터 인허가를 받지 못한 전자금융업자도 오픈뱅킹을 통해 이용자의 재무관리와 고도화된 상품 추천을 일부 제공하고 있어 마이데이터 기업이 얼마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오히려 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입 당시 개인 신용정보 유출 등에 대한 우려로 법안 통과가 연기되었는데, 마이데이터를 통한 산업 활성화가 강조되면서 이러한 정보보호 우려는 해소되지 못한 채 시행에 이른 상황이다. 해외에서 PSD2, 오픈뱅킹 등 관련 논의가 먼저 이뤄졌지만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은 국내가 최초라는 측면에서 자산관리 등의 겸영 업무보다는 통합조회라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본업과 실제 구축되는 마이데이터 종합포털 내 PDS(Personal Data Storage, 개인데이터 저장소)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가상 자산 제공을 통한 생태계 활성화를 고려

한편,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보편화되고 다수의 마이데이터 사업자간 경쟁이 촉진되며 PDS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신생 마이데이터 기업이 이용자에게 재무관리 서비스와는 별도로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일부 DID(Decentralized Identity, 탈중앙화 신원인증) 기업이 추진하는 가상자산 제공이 하나의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용자는 마이데이터 생태계 참여에 따라 부여받은 가상자산을 즉시 활용하거나 생태계 활성화시 증대되는 자산 가치를 공유할 수 있다.

데이터 거래에 따른 데이터 제공자에 대한 가상자산 제공은 거래 투명화에 긍정적


또한 향후 마이데이터 기업이 추진할 수 있는 정보은행 등의 비즈니스에 있어서도 가상자산은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내 데이터 리워드 및 거래 서비스에 있어 데이터 제공자에 디지털 바우처 형태의 보상 지급이 논의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향후 마이데이터 기업이 데이터 정보 제공자에 가상자산을 지급할 경우 거래를 투명화하고 서비스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가상자산 관련 금융회사의 대응 방향

그러나 가상자산이 실제 마이데이터 기업에서 활용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ICO(Initial Coin Offering, 가상자산공개) 허용 여부와 별개로 먼저

마이데이터 기업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상 가상자산 사업자로서 신고가 가능한지는 불분명하다. 이는 기타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사업 참여와도 연결된다.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 있어 대형 금융회사는 중개결제수탁 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으나, 국내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사업 참여는 더딘 상황이다. 일부 대형은행이 기관투자자 대상의 가상자산 수탁기업에, 증권사가 국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에 일부 지분을 투자하고는 있으나, 이를 본격적인 가상자산 시장 진입으로 평가하기에는 거리가 있다. 또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금융회사로 분류되지 않아 최근의 대형거래소 지분 인수에 대규모 참여가 불가능하다. 이에 오히려 국내 일부 증권사 및 운용사는 규제가 상대적으로 정립된 싱가포르 기반의 가상자산 관련기업 등에 투자를 진행하였거나 추가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

이는 가상자산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관계가 깊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책당국은 가상자산 투자자나 이용자 보호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 직접 규제의 대안으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거래은행의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하고는 있으나, 투자자 등에 대한 규제 논의는 2018년 가상자산 가치 논쟁 시점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규제 공백 속에 일부 투자자는 레버리지를 극대화한 해외 가상자산 파생 시장에 노출되고 있다.

현재와 같이 가상자산에 대한 마이데이터 기업 및 대형 금융회사의 참여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가상자산 산업 및 시장은 어떻게 될까? 혹시 간접 규제에서 직접 규제로 전환된 P2P 대출시장과 유사하게 시장 및 규제 환경이 변화하지 않을까? 최근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출마한 일부 후보자가 원화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주장하고 있는 점은 가상자산 규제 전반에 있어 긍정적이다.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결제·송금 수수료 무료화 공약과 이를 통한 소상공인 지원 등 기대효과도 중요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가상 자산 투자자 보호를 확립하는 등 가상자산 관련 규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다. 만약 가상자산 규제 도입이 가격 급등으로 이어질 것이 우려된다면 글로벌 차원에서 시행 중인 대형은행에 대한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 등의 형태로 도입하면서 기관투자자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위한 금융회사의 역할 등을 포함해 규제 전반을 논의할 적절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마이데이터 기업을 포함한 국내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가능 여부는 불분명

가상자산 투자자 및 이용자에 대한 보호가 이뤄질 필요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규제 전반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

코로나 이후 노동인구 지형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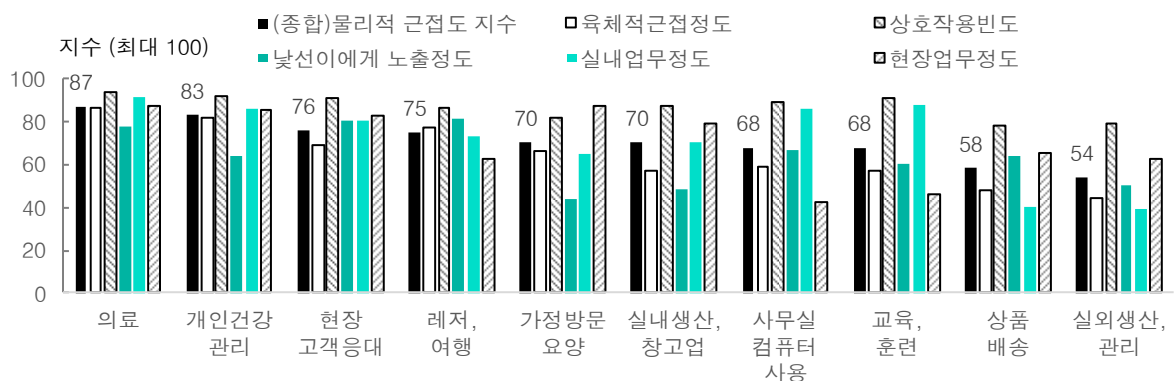
박 상 현 연구위원(parksanghyun@hanafn.com)

맥킨지가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전후의 노동인구 변화와 영향을 평가한 결과¹⁾ 물리적 근접도와 원격근무 가능여부가 주요 변화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원격근무, 전자상거래, 자동화의 추세가 한층 가속화됨에 따라 직종 전환이 필요한 위험군의 노동인구 규모가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는 이전 대비 최대 2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저임금 직종, 이민자, 저학력 여성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노동환경 악화 및 양극화에 대비한 정책마련이 요구된다.

■ 코로나19 이후 물리적 근접도와 원격근무가 노동인구 변화 요인으로 작용

- 의료 분야는 신체적 근접 정도, 상호작용 빈도, 실내 업무 정도가 다른 직종보다 높아 종합 물리적 근접도 지수 순위는 1위이지만 원격업무로의 대체가 어려움
 - 건강관리 분야는 낯선 사람 노출 정도가 의료 분야보다 낮고 그 외 항목은 의료 분야와 유사하지만 홈 피트니스와 같이 일부 영역은 원격 서비스로 대체가 가능
- 소매점, 은행 등과 같은 현장 고객 응대 분야는 사람과의 상호작용 빈도에서 의료 분야와 유사한 수준이지만 전자상거래, 디지털 बैं킹 등으로 전환되는 추세
 - 컴퓨터 기반 사무실 업무 분야는 상호작용 빈도와 실내 업무 정도가 최소 86 이상이나 나머지 항목은 최대 60 이하로 코로나19 확산 이후 원격근무가 확대됨
- 상품 배송 업무와 실외생산, 관리 분야는 다른 분야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모든 항목에서 낮은 수준이며 원격근무로 대체할 수 없고 필요성도 낮음

■ 직종별 물리적 근접도 지수



주 : 미국 고용&훈련 관리국, 미국 노동부, 미국 노동 정보 시스템 O*NET 온라인,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 분석 자료 기반 각 지수 산출 자료 : Mckinsey

[1] 세계 인구의 절반과 GDP의 62%를 차지하는 미국, 영국 등 8개 국가에 대한 코로나19 전후의 영향도를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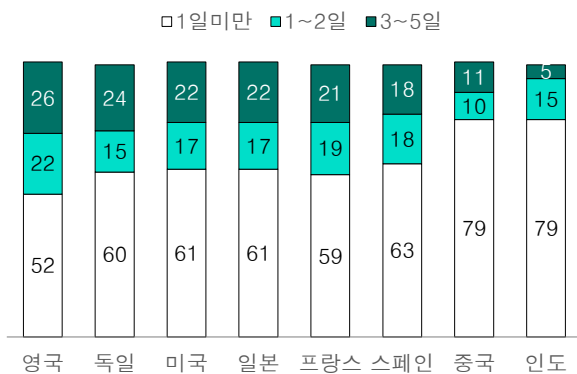
■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선진국을 중심으로 원격근무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 영국, 미국 등의 선진국은 컴퓨터 기반 각종 비즈니스가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영국 노동인구 26%와 미국 노동인구 24%는 3일 이상 원격 근무가 가능
 - 반면 인도는 전체 노동인구의 73%가 농업, 제조업 등의 육체 활동이 필요한 직종에 집중되어 있어 5%의 노동인구만이 3일 이상 원격 근무가 가능
 - 중국은 노동인구의 59%가 실내외 생산 업종에 집중되어 있으나 인도보다 컴퓨터 활용 분야의 노동인구가 약 2배 많아 3일 이상 원격 근무가 가능한 비율은 11%
- 디지털 기술 도입에 따라 원격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기업 효율성 향상에 이점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입증됨에 따라 원격 업무 수행을 위한 기술 발전과 도입은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전자상거래 규모는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2배에서 5배까지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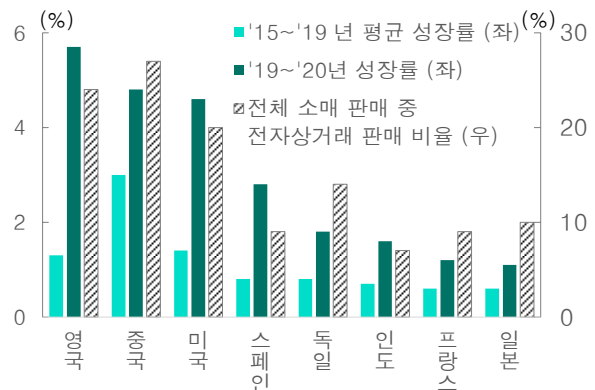
- 영국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전자상거래 연평균 성장률이 1.3%에 불과했으나 2020년에는 5.7%로 전년 대비 4.5배 상승했고 전자상거래 판매 비율은 24%
- 중국의 전자상거래 연평균 성장률은 2019년까지는 3%였으나 2020년에는 전년 대비 4.8%로 1.6배 상승했으며 전체 소매 판매에서 전자상거래 비율은 27%
- 미국도 영국과 유사하게 2019년까지의 전자상거래 연평균 성장률은 1.4%였으나 2020년에는 4.6%로 전년 대비 3.3배 상승하였고 전자상거래 판매 비율은 20%
- 전자상거래와 디지털 거래 등의 확산으로 소매점, 은행 등과 같이 현장에서 고객과 상호작용하는 분야의 노동인구 수요는 코로나19 이후에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주당 일수별 원격근무가 가능한 노동인구 비율



자료 : Mckinsey

■ 전자상거래 성장률과 전체 소매 판매 대비 비율



자료 : Mckinse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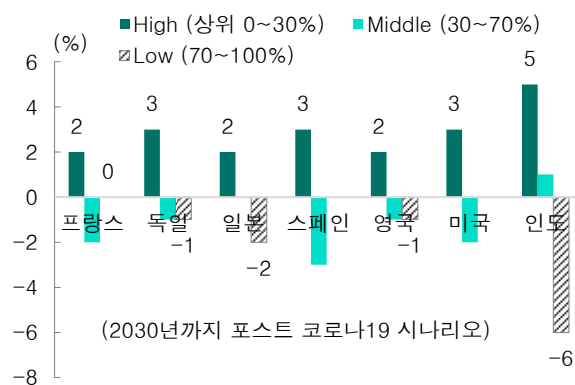
■ 코로나19 이후 고임금 직종 노동 수요는 증가하고 저임금 직종 노동 수요는 감소

- 2030년까지 노동 인구 수요는 STEM 전문가, 비즈니스 및 법률 전문가, 기술자, 건강 관리 등에 해당하는 고임금 직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반면에 상대적으로 저임금 직종에 해당하는 생산 작업, 음식 서비스, 사무 지원 등에 대한 노동 수요는 자동화, 전자상거래 확대 등으로 인해 감소가 불가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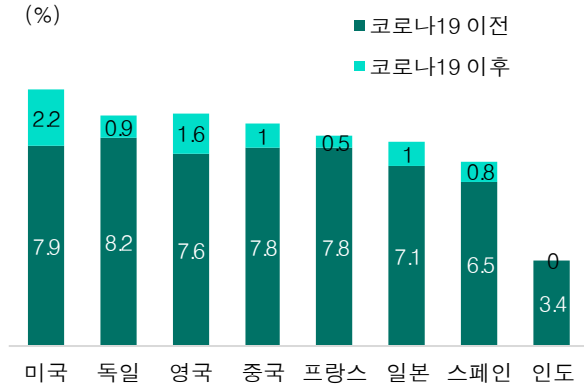
■ 특히 소수민족, 여성, 저임금 직종 등에 해당하는 노동인구에서 고용 불균형이 발생

- 미국 노동인구의 37%를 차지하는 흑인, 아시아계, 히스패닉 등의 소수민족 및 이민자의 39%는 향후 10년 내에 고용 불균형으로 인한 직업 전환이 필요
- 독일의 경우 다른 국가와 비교해 대학 학위 미보유자, 여성, 저임금 직종 등에 해당하는 노동 인구 비율과 직업 전환 필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전반적으로 대학 학위 미보유자와 여성에 해당하는 노동인구가 다른 유형보다 고용 불균형으로 인한 직업 전환 비율이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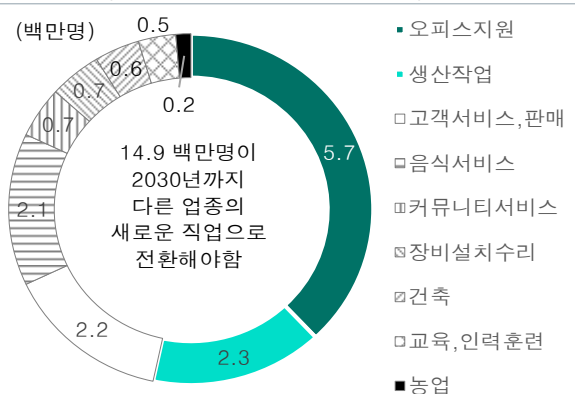
■ 주요 국가 임금 수준별 고용 점유율 변화 (~203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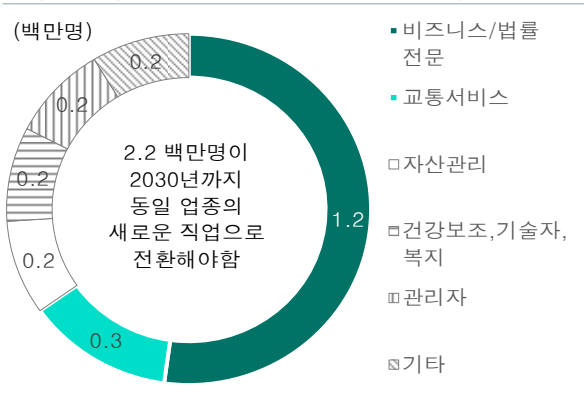
■ 직업 변경이 필요한 노동 인구 증가율 (~2030년)



■ 다른 업종으로 직업 전환이 필요한 노동인구 수



■ 동일 업종 내에서 직업 전환이 필요한 노동인구 수




자료 : Mckinse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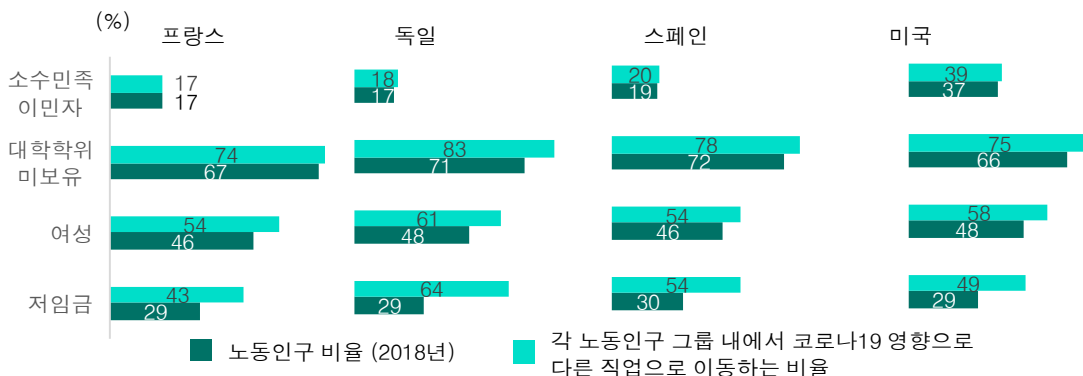
■ 고임금 직종을 제외한 노동인구 종사자는 2030년까지 다른 직종으로의 전환이 필요

- 미국의 경우 코로나19 발생 이전에는 2030년까지 직종 전환이 필요한 노동인구 비율이 7.9%였으나 코로나19 이후에는 2.2%가 추가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30년까지 사무지원, 생산, 음식 서비스 등에 종사하는 저임금 직종의 노동인구 약 14.5백만명이 다른 업종의 새로운 직업으로 전환해야 할 것으로 전망
 - 2030년까지 동일 업종 내에서 직업 전환이 필요한 노동인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2.2백만명으로 비즈니스 및 법률 전문가와 교통 서비스 분야 등이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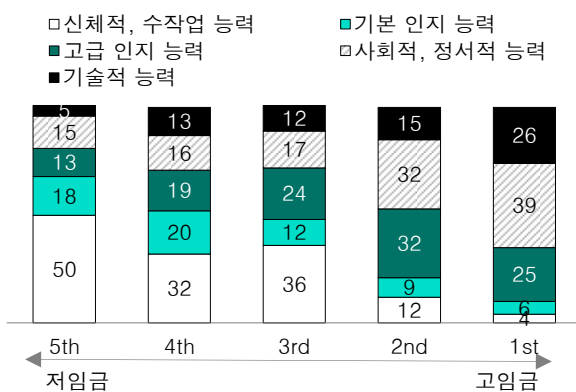
■ 다만 기술적, 사회적, 정서적 직무 능력을 가진 노동인구에 대한 수요는 증가

- 고임금 직종일수록 기술적, 사회적, 정서적 능력에 사용하는 시간이 많고 저임금 직종인 경우 신체적 활동과 기본 인지 능력 등에 사용하는 시간이 많음
- 2030년까지 고임금 직종의 노동시간은 2018년 대비 최대 4시간 증가하고 저임금 직종의 노동시간은 최대 7시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고용 불균형으로 2030년까지 다른 직업으로 이동하는 노동인구 비율



■ 임금 수준별 각 직무 능력에 사용하는 시간 비율 (US)



자료 : Mckinsey

■ 2030년까지 직무 능력별 노동시간 증감율

직무 능력	독일		미국		중국		인도	
	A	B	A	B	A	B	A	B
기술적	+2.3	12	+1.9	11	+3.5	6	+3.3	3
사회적 정서적	+3.2	17	+4.0	19	+3.4	14	+0.9	16
고급 인지	-0.3	24	-0.6	22	+0.9	17	-1.0	15
기본 인지	-3.4	17	-4.3	18	-0.9	14	-1.0	11
신체적 수작업	-1.8	31	-1.0	31	-7.0	49	-2.2	54

A : 2030년까지 각 직무 능력별 노동시간 증감율
B : 2018년 각 직무 능력별 노동시간 점유율

자료 : Mckinsey

라인, 디지털뱅크 통한 아시아 소매금융시장 진출 확대

김지현 수석연구원(jihyunkim@hanafn.com)

최근 네이버의 자회사 라인이 대만 금융당국으로부터 인터넷전문은행 인허가를 취득해 올해 상반기 라인뱅크 대만을 설립할 예정이다. 동남아시아 지역의 핀테크시장 급성장과 디지털뱅크 정책 완화로 동남아 디지털 금융시장의 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아시아 내 광범위한 고객기반을 보유한 라인이 아시아시장 디지털 금융사업을 공격적으로 확대 중이다. 국내 은행들도 동남아 디지털 금융시장의 소매금융서비스 확대를 위해 디지털뱅크를 통한 해외진출 전략을 적극 고민할 필요가 있다.

■ 최근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 라인이 대만 금융당국의 인터넷전문은행 라이선스 취득^[1]

- 네이버의 자회사 라인파이낸셜의 라인뱅크가 대만의 인터넷전문은행 라이선스를 취득해 올해 상반기 내 라인뱅크 대만을 런칭할 계획
 - 라인뱅크 대만 지분 구조 : 라인파이낸셜타이완(49.9%), 푸본뱅크(25.1%), CTBC뱅크(5%), 파이스톤(5%), SC은행(5%), 타이완 모바일(5%), 타이완 유니온뱅크(5%) 등
- 라인뱅크 대만은 저축상품, 송금, 체크카드, 개인대출 등 소매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며, 모바일메신저 ‘라인’을 이용해 금융 비즈니스를 빠르게 확대할 계획

■ 라인뱅크는 라인의 고객 기반을 이용해 아시아시장 내 금융사업을 공격적으로 확대^[2]

- 라인은 라인 플랫폼을 통해 아시아시장 내 광범위한 고객기반을 바탕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최근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업무영역을 공격적으로 확대
 - 인구수 대비 라인 이용자 비중 : 일본 85%, 태국 67%, 인도네시아 32%, 대만 88%
 - 라인파이낸셜 설립 후 가상자산, 보험, 증권, 대출, 인터넷전문은행 등으로 금융사업을 확대
- 지난 해 태국에서 ‘라인BK’를 성공적으로 런칭했으며, 올해 대만을 시작으로 인도네시아와 일본으로 banking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
 - '21년 2월말 기준 라인BK는 약 2백만 명의 가입자와 683백만달러 규모의 개인신용대출을 유치
 - 인도네시아는 하나은행, 일본은 미즈호은행과 함께 디지털뱅크 설립을 진행 중


[1] "LINE wins operational licence to launch internet bank in Taiwan", 2021.02.04, Finextra

[2] "LINE BK tops two million users in Thailand", 2021.03.15., The Asian Bank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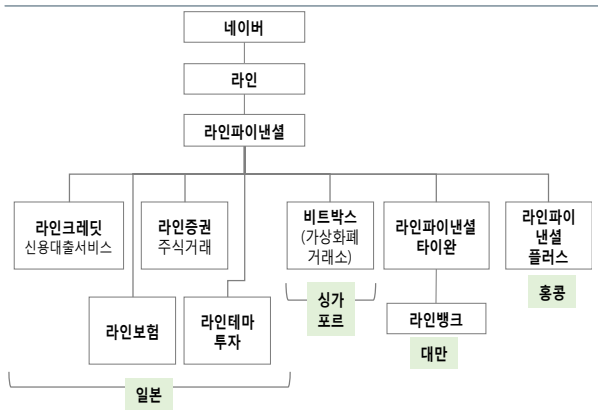
■ 특히 동남아시아 핀테크시장 성장과 디지털금융 정책 완화가 금융시장 진출을 가속화³⁾

- 동남아 핀테크 및 디지털 금융시장은 급성장 중이며, 향후 스마트폰 보급률의 증가와 함께 더욱 빠르게 성장할 전망
 - 동남아시아 디지털 금융시장 규모 전망('25년) : 대출 1,100억달러, 간편결제 1조달러
 - 동남아시아 핀테크 시장 규모 전망('25년) : 2,000억달러
- 동남아 국가들이 취약한 금융인프라 해결을 위한 디지털금융 정책을 완화하고 디지털뱅크 설립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도 동남아 지역 금융시장 진출 요인으로 작용
 - 동남아시아 디지털뱅크 인가 방침 : 싱가포르 2개, 대만 3개, 말레이시아 5개
- 은행뿐만 아니라 벤처캐피털, 빅테크·핀테크, 전자상거래 기업, 통신사, 결제업체 등 다양한 기업들이 동남아시아 디지털뱅크 인허가를 신청하며 치열한 경쟁이 예상

■ 국내 은행들도 동남아시아 내 소매금융시장 확대를 위해 디지털뱅크 전략을 고민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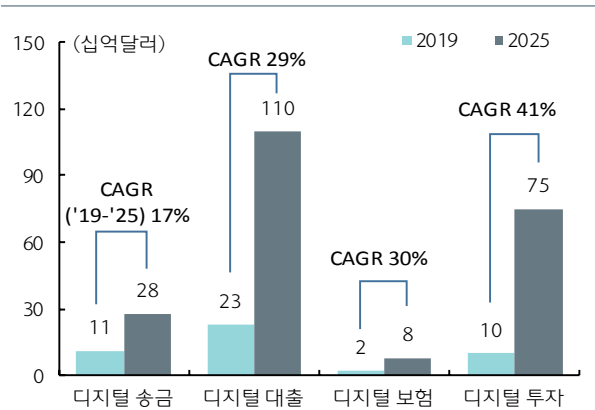
- 국내 은행도 성장잠재력이 큰 동남아시아 진출을 통해 수익다각화를 추구하며 현지 금융기관 투자 및 직접 진출과 함께 디지털뱅크에도 관심
 - KB국민은행은 인도네시아의 '부코핀 은행'과 캄보디아의 소액대출금융기관 '프라삭 마이크로파이낸스'를 인수했으며, 미얀마 진출을 위해 법인설립 인가를 신청
 - 신한은행은 미얀마 지점 현지법인 전환 추진, 디지털뱅크 플랫폼 '신한 쏘 인도네시아' 출시
- 동남아시아 진출 전략으로 핀테크, 빅테크, 유통 플랫폼 등 다양한 회사와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금융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
 - 태국 카시콘은행은 동남아 전자상거래 업체 Shopee와 제휴해 디지털 대출서비스 제공 

■ 라인파이낸셜의 금융시장 진출 현황



자료 : News Media

■ 동남아시아 디지털금융 시장 성장 전망



자료 : Bain, Euromonitor, Temasek

3) "Digital banks in Asia Pacific : adding value to financial service?", 2020, Deloitte

딥페이크, AI 기술발전이 가져온 부작용

황성영 수석연구원(sungyoung.hwang@hanafn.com)

최근 안면인식, 딥페이크(Deepfake) 등 AI 기술 기반 콘텐츠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명예훼손, 금융사기 등 디지털 범죄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딥페이크 감지를 위한 기술투자가 지속되고 있지만 아직 초보적 수준이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제재 법안의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국내의 경우 '20.6월 영상물 제작배포를 처벌하는 규정이 시행되었지만, 음성변조 등을 활용한 디지털금융 범죄에 대비한 보다 광범위한 법안마련이 요구된다.

■ 가트너, 2023년부터 전체 금융사기 범죄 중 20%에 딥페이크가 활용될 것으로 예측^[1]

- AI 기술 중 최근 가장 주목 받고 있는 생성적 적대 신경망(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을 활용한 ‘음성변조·생성’ 기술의 악용 가능성 우려가 증대
 - '19.3월 영국의 한 에너지기업에서 딥페이크 음성조작을 통해 걸려온 전화에 상사의 목소리로 거액을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3억원을 사기당하는 사건이 발생
- 기존 보이스피싱과 달리 대상의 가족관계 및 사회적 네트워크를 파악하여 지인의 영상과 음성까지 묘사한 스피어피싱 범죄가 만연할 것으로 예상
 - 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위조한 초현실적인 콘텐츠가 제작 가능해짐에 따라 금융사기 피해가 급증할 전망

■ 딥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딥페이크가 ‘FakeApp’ 무료 SW 배포로 대중화되며 수많은 악용사례가 발생, 이로 인한 윤리 논쟁이 반드시 해결해야할 과제로 부상


- 가장 빈번한 악용사례는 유명인의 얼굴·음성을 합성하여 진짜 같은 가짜뉴스 또는 영상을 생성하거나 유명인을 사칭해 타인을 비난하는 등의 명예훼손 사례
 - 미국 대통령 등 비중 있는 인물의 영상을 조작하여 허위 연설을 뉴스화 하거나, 유명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 후 성인물을 제작·배포
- 딥페이크를 생성하는 생성적 적대 신경망 기술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어 향후 유명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범죄 대상이 될 수 있음
 - 2가지 머신러닝(가짜 데이터를 생성, 만들어진 가짜를 감지) 실행 후 감지할 수 없을 때까지 학습을 수행하므로 데이터가 많을수록 완성도가 높으며, 이로 인해 현재까지는 유명인의 악용사례가 월등히 많음

[1] 2021년 예측: 인공지능과 그것이 사람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Gartner

■ 美 국방고등연구기획청(DARPA)은 딥페이크를 감지해 내기 위한 기술연구가 지속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초기 수준이라고 언급

- 딥페이크의 진위여부를 감지하기 위한 디지털 포렌식 기술 투자가 지속 중이나, 생성적 적대 신경망은 자체 훈련을 통해 이를 회피하는 방법도 학습 가능
 - 장기적 관점에서 다수에게 공유된 객관적 정보에 대한 신뢰가 손상되어, 향후 오디오 및 시각자료 증거에 대한 광범위한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 존재
- 기술업계에서는 디지털 위조 영상·음성을 찾아내는 기술이 아직 초기 수준이기 때문에 강력한 제재 법안의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론
 -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딥페이크 감지 솔루션 개발 활동이 진행되고 있지만, 탐지 기술이 유포·확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동영상·음성이 이미 나온 뒤에는 실질적 회복이 거의 불가능

■ 딥페이크를 통한 영상 콘텐츠 제작 배포 관련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디지털 범죄의 성향 상 보다 광범위하고 강력한 법안 마련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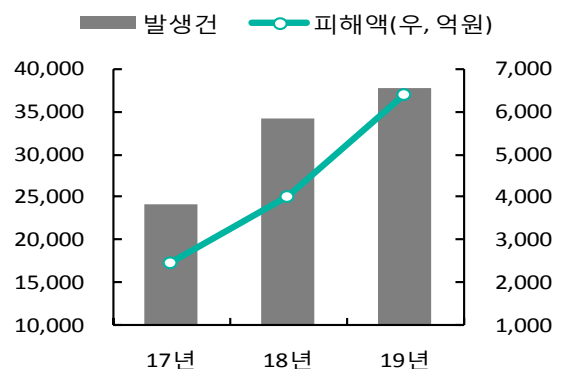
- '20.6월 딥페이크 영상 제작·배포를 성범죄로 처벌하는 규정이 시행되었지만, 음성학습을 통한 보이스피싱은 기존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13.5월) 외 처벌규정이 없는 만큼 법제 강화를 위한 조기검토가 필요
 - 2019년 일반 보이스피싱 피해건수가 3.8만건(6,398억원)에 달하는 만큼, 딥페이크가 보이스피싱에 악용될 경우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
- 일반인의 경우 영상이나 목소리를 온전하게 위조할 정도로 수집 가능한 데이터가 많지 않아서 아직 우려할 상황은 아니지만 법제적 대비가 요구되는 상황 

■ 국내 영상·사진 위조 관련 법안 개정 이력

일자	법령명	처벌
2020.3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2014.5월	정보통신망법 제74조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1995.12월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1995.12월	형법 제243조 (음화반포)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내 보이스피싱 피해건수 및 금액



자료 : 경찰청

금리: 분기말 이후 장단기 금리차 확대 예상

김 수 정 수석연구원(sjkim1771@hanafn.com)

유로지역 코로나 확진자수 재증가와 양호한 미국 국채 입찰 확인 등으로 대외금리가 반락했다. 국내도 대외금리 하락과 정책당국의 구두 개입 등으로 금리가 하락해 국고 10년물의 경우 3월 이후 상승폭을 모두 되돌렸다. 최근 국내 금리 하락이 주요국 대비로도 빠르게 전개되는데다 금리 급등을 야기했던 수급 교집도 일정 부분 해소됨에 따라 추가적인 금리 하락 여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분기말 수급 이슈가 마무리되면서 장단기 금리차가 다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유로지역 코로나 확진자수 재증가와 미중 갈등 부담 등으로 주요국 금리 반락

- FOMC 내 '24년 이전 금리인상을 주장하는 위원 수는 증가했으나 파월 의장은 실제 지표 개선을 확인한 후 후행적으로 통화정책을 조정하겠다며 인내심 강조
 - 장기금리 상승의 경우 경제 낙관론에 근거한 것으로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 언급
- 연준은 위기 대응 과정의 한시적 조치였던 SLR 완화(은행 자기자본산출에 국채·지준 제외)를 종료했지만 일각에서 우려한 대규모 국채 매도는 현실화되지 않음
- 신흥국에서는 인플레이션 위험과 통화가치 절하를 배경으로 과감한 기준금리 인상 행보 부각(3/17 브라질 +75bp, 3/18 터키 +200bp, 3/19 러시아 +25bp)
- 대외금리는 바이든 정부의 3조 달러 장기 부양책 추진과 연준의 경제전망 상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유로지역 봉쇄조치 강화와 미 국채 입찰 불안 완화 등으로 반락


■ 국내 금리는 대외금리 반락과 정책당국의 구두 개입 등으로 비교적 큰 폭 하락

- 금통위 의사록에서는 다수 위원이 고용 부진과 마이너스 GDP 꺾 상황으로 완화 기조의 장기화 필요성을 언급했으나 일부는 금융불균형 관련 경계 발언을 강화
 - 경제가 점차 회복되면서 금융 완화 정도가 확대되고 금융안정을 위협한다고 지적
- 다만, 추가적인 국고채 매입에 대해서는 확장적 재정과의 정책 공조 및 채권시장 변동성 완화 목적 등에 공감하면서 시장 안정화 의지를 표명
- 시장금리는 대외금리 추가 상승 제한과 한은의 3월 통안채 발행 축소 및 구두 개입, 기재부의 만기별 국고채 발행량 탄력 조정 시사 등에 힘입어 하락 전환
 - 한은은 추가적인 국고채 매입 가능성과 통안채 발행에 대한 유연성 제고를 시사

■ 분기말 수요와 손절성 투매 일단락 등이 주요국 대비 빠른 금리 하락의 배경

- 국고채 금리는 3.15일을 고점으로 하여 장기물 중심으로 빠르게 하락, 국고 3년과 10년 금리 모두 13거래일 만에 1.0%, 1.9%대로 재진입
 - 주요국 국채 10년 금리 변동폭(3.16~25일 중, bp): 韓 -19, 호주 -11, 獨 -5, 美 +3
- 3년물 금리 급등 당시 증권사가 손실을 보면서 분기 손익 확정을 위한 손절성 매도 물량이 집중되었는데, 동 포지션이 일단락되며 금리 오버슈팅이 해소
 - 증권사는 3년 국채선물을 3.9, 3.15일 각각 3.3만계약(역대 최대), 1.0만계약 순매도
- 분기말 보험사 초장기채 실수요와 본드 포워드 거래를 위한 증권사의 국고 30년 매수 집중으로 장기채가 강세를 보인 점도 30년 이하 구간 금리 하락으로 연결
- 글로벌 기관들의 분기말 리밸런싱(채권 비중 확대)에 따른 美 채권시장 추가 약세 제한 기대, 국내 커브 플래트닝 포지션 확대도 장기금리 하락을 유도
- 국채 현물시장에서 외국인 순매수가 지속(1.20일 이후 42거래일 연속 총 30조원 순매수, 잔고는 연초 대비 20조원 증가)된 점도 우호적 수급 여건으로 작용

■ 채권시장의 분기 수급 이슈가 마무리되면서 장단기 금리차가 다시 확대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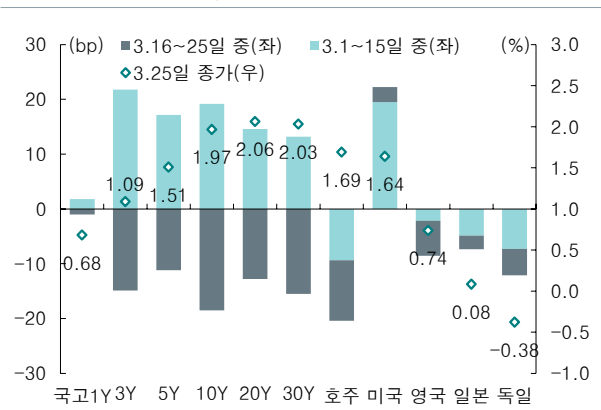
- 최근 장단기 금리차가 빠르게 축소된데 따른 반작용, 국고채 입찰 공백, 주요국 코로나 재확산 등을 배경으로 당분간 3년물 금리는 안정적 흐름을 이어갈 전망
 - 국고 10년과 3년 금리차: 3.18일 102bp → 3.25일 88bp
- 그러나 장기금리의 경우 분기 수급 이슈가 마무리되고 미국의 대규모 추가 부양책 추진 등으로 최근의 낙폭을 일정 부분 되돌릴 것으로 예상
 - 국고채 3년, 10년 금리는 각각 1.00%~1.20%, 1.90%~2.10% 범위로 전망 

■ 2월 금통위 의사록 위원별 의견 개진

위원	의견
A	채권시장 안정화를 위한 적극적 대응 필요. 생산갭 축소, 물가 추이를 볼 때 실질정책금리도 하락할 것. 금융상황의 완화정도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금융불균형 누적에 대한 경계가 필요
B	통화정책은 실물경제와 고용안정에 더욱 주력해야 하며 정부 조달 비용 측면에서 국고채 매입을 통한 장기금리 안정이 필요
C	코로나 관련 불확실성이 높고 고용 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완화기조 유지 필요
D	재정의 역할 확대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 공조 필요. 다만 수급에 직접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변동성을 억제 노력이 적절
E	안화적 금융상황 지속으로 금융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이 누적. 경제가 본격적 회복국면으로 들어서면 금융안정에 무게를 뒀야
F	경제가 회복추세를 보이더라도 마이너스 GDP 갭 해소에는 상당기간 소요 예상

자료 : 한국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주요 국채 금리 등락폭



주 : 호주, 미국, 영국, 일본, 독일 국채는 10년물 기준
자료 : Bondweb

외환: 지연되는 유로존 경기회복과 강달러 재개

윤지선 연구원(jisun.yun@hanafn.com)

미국채 금리급등에 변동성 완화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코로나 상황 악화에 따른 경제회복 회의론이 유로화 약세를 이끌면서 달러화는 재차 강세를 보였다. 또한 위안화도 통화정책 긴축 선회 및 미중갈등 경계감으로 약세를 보였다.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 채권자금 대규모 유입과 월말 네고물량 등에도 불구하고 달러 강세 및 위안화 약세로 반등하였다. 당분간 달러 강세는 속도 조절을 보이겠으나 4월 외국인 배당금 역송금 등 수급 부담이 원/달러 환율의 하단을 지지할 전망이다.

■ [원/달러 환율] 미국채 금리 상승세 진정에도 불구하고 1,130원을 중심으로 등락

- 원/달러 환율은 미국채 금리 상승세가 진정되는 한편 외국인 채권 자금 유입, 월말 네고, 잇따른 해외 선박수주, 견조한 수출개선세 등으로 1,120원대로 하락
 - 국고채 금리 상승, 원화 약세,美中긴장 재부각 등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원화채권에 대한 매력도 증가하며 연초 이후 17조원 이상 순투자(주식은 10조원 이상 순매도)
- 그러나 이후 유럽의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 백신에 대한 의혹, 미중 긴장 재부각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며 원/달러 환율은 1,130원대로 반등


■ [국제 환율] 코로나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유로화 약세로 달러화는 올해 최고치 강세

- 달러인덱스는 미국채 금리 상승세 안정에도 불구하고 유로화 약세, 코로나 재확산 우려, 미중 긴장, 증세 논의 등이 금융시장 변동성을 높이며 93pt 가까이 상승
- 유로화는 예상치를 크게 상회한 3월 유로존 PMI 등 양호한 경제지표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재확산과 봉쇄에 따른 경기회복지연 우려로 유로당 1.18달러대로 하락
 - 네덜란드·노르웨이(봉쇄연장 및 강화), 프랑스(이동제한검토), 영국(입국규제검토)
- 엔화는 美日 금리차 확대 영향으로 최근 약세를 보였으나, BOJ회의에서 10년물 국채금리 변동폭 확대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달러당 109엔에서 추가 상승은 제한됨
- 위안화는 양회 이후 제기된 긴축 우려,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양국간 긴장 재확인, 신장지구 인권이슈 관련 서방국가들의 제재 결정으로 달러당 6.5위안을 상회
 - SEC는 중소기업들에 대해 美회계기준 거부시 상장폐지 하는 법안을 발효하기로 하였으며, NIKE등 해외 의류 기업들은 신장 목화 사용 금지를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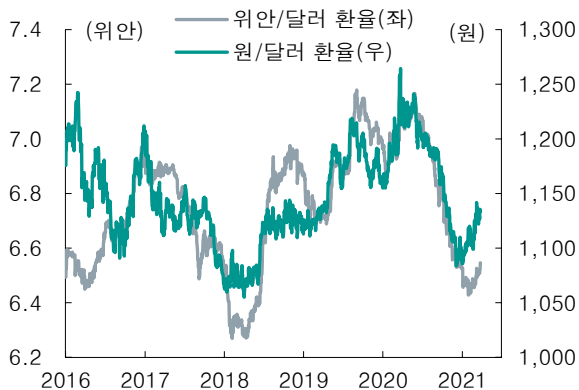
■ 국내투자자들의 해외투자 구조 변화는 원/달러 환율에 하방경직성으로 작용할 전망

- 자산 측면에서는 채권보다는 주식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데, 국민연금의 기금운용목표(해외주식 비중 '20년 23.1%에서 '25년 35%로 확대 계획) 등을 비롯해 국내투자자들의 주식 중심 해외투자 확대는 기초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해외주식을 투자할 때 해외채권보다 환헷지를 덜하기 때문에 주식을 중심으로 해외투자가 늘어날 경우 달러 수요가 더 많아지며 환율 상승 압력을 높임
- 투자 주체 측면에서는 개인들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동안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 방식이 아닌 직접투자 방식으로 해외주식 투자가 빠르게 증가
 - 국제수지 기준 개인의 해외 주식 투자는 '20년 \$194.7억('17~'19년 평균 \$19.5억)
- 저금리 환경 속 금융자산 필요성에 대한 인식, 해외 주식 투자 인프라 확대 등으로 개인의 해외주식 직접투자 확대 현상은 기초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개인은 환헷지를 하기 어려운 주체이기 때문에 해외투자에서 개인의 직접투자 비중이 늘어나면 해외투자 증가에 따른 환율 상승 압력이 더 높아지게 됨
- 구조적으로 대외자산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산 및 주체 측면에서 해외투자 구조 변화는 달러 수요를 가중하게 되어 환율에 하방경직성으로 작용
 - 한국의 대외자산은 '10년 \$7,000억에서 '20년 \$1.18조원으로 늘어났으며, 이중 직접투자자산은 \$4,848억, 증권투자 자산은 \$6,957억(주식 \$4,536억, 채권 \$2,419억)

■ 달러강세 속도 조절 속 원/달러 환율은 1,120~1,130원 중심 등락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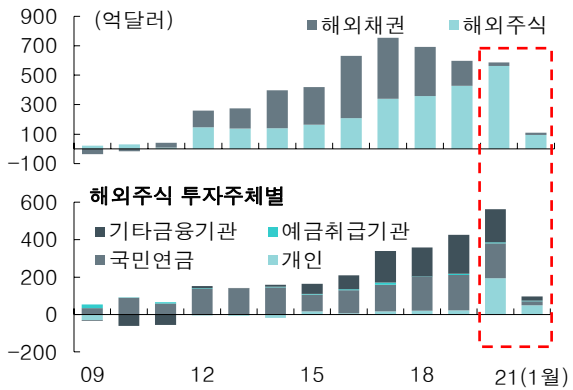
- 유로존 경제회복 지연에도 불구하고 선반영된 美경제 우위론 속에 달러화 강세는 속도조절을 보이겠으나, 4월 수급 부담은 원/달러 환율 하단을 지지할 전망
 - 삼성전자의 외국인 배당금이(작년 1.4조원→올해 7.7조원)이 특별배당으로 크게 증가하며 올해 4월 예정된 외국인 배당금은 14조원(작년 8.2조원) 

■ 원/달러 환율과 위안/달러 환율 추이



자료 : Bloomberg

■ 해외투자 자산별, 해외주식 투자주체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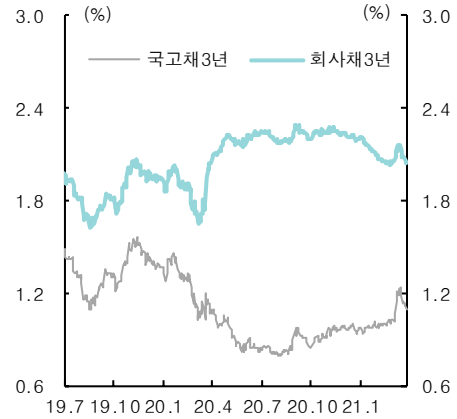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국내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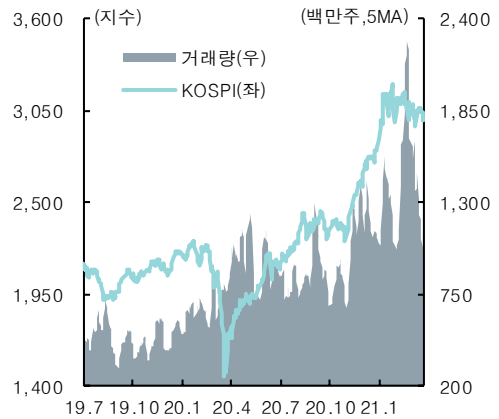
금리

	콜 (1일)	CD (91일)	산금채 (1년)	회사채 (AA-,3년)	국고채 (3년)	국고채 (5년)
'19년말	1.39	1.53	1.49	1.94	1.36	1.48
'20년말	0.61	0.66	0.90	2.21	0.98	1.34
2월말	0.59	0.74	0.80	2.05	1.02	1.45
03월 19일	0.47	0.75	0.84	2.09	1.15	1.58
03월 22일	0.47	0.75	0.84	2.08	1.13	1.62
03월 23일	0.49	0.75	0.84	2.08	1.13	1.59
03월 24일	0.47	0.75	0.83	2.06	1.12	1.54
03월 25일	0.51	0.75	0.83	2.05	1.09	1.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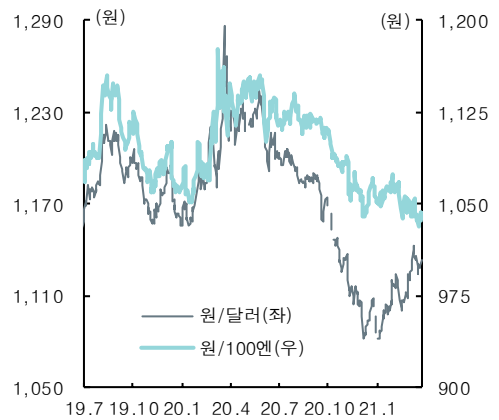
주가

	KOSPI	거래대금 (억원)	거래량 (백만주)	외인순매수 (억원)
'19년말	2,197.7	41,136	416	-3,404
'20년말	2,873.5	179,289	1,074	2,494
2월말	3,013.0	215,049	1,361	-28,300
03월 19일	3,039.5	163,376	1,068	-5,860
03월 22일	3,035.5	133,489	916	-5,483
03월 23일	3,004.7	161,671	1,331	-4,762
03월 24일	2,996.4	134,000	978	-4,871
03월 25일	3,008.3	134,347	940	-794



환율

	원/달러	원/100엔	원/위안	원/유로
'19년말	1,156.4	1,064.2	166.0	1,297.1
'20년말	1,086.3	1,052.0	166.3	1,327.0
2월말	1,123.5	1,053.7	173.5	1,355.5
03월 19일	1,130.6	1,037.9	173.7	1,345.8
03월 22일	1,128.4	1,036.5	173.4	1,346.4
03월 23일	1,129.7	1,039.9	173.3	1,338.6
03월 24일	1,133.6	1,042.5	173.7	1,339.1
03월 25일	1,133.3	1,037.9	173.1	1,33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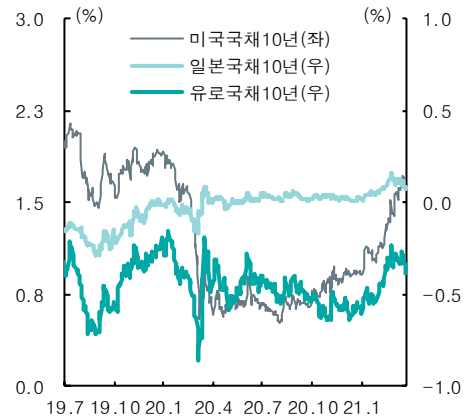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연합뉴스포맥스

해외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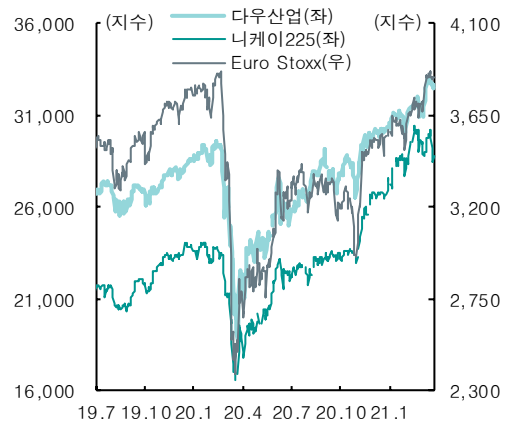
금리

	미국				일본	유로
	FFR	리보(3월)	국채2년	국채10년	국채10년	국채10년
'19년말	1.55	1.91	1.57	1.92	-0.01	-0.19
'20년말	0.09	0.24	0.12	0.91	0.02	-0.57
2월말	0.07	0.19	0.13	1.40	0.16	-0.26
03월 19일	0.07	0.20	0.15	1.72	0.11	-0.29
03월 22일	0.07	0.19	0.15	1.69	0.08	-0.31
03월 23일	0.07	0.20	0.15	1.62	0.08	-0.34
03월 24일	0.07	0.20	0.15	1.61	0.07	-0.35
03월 25일	0.07	0.19	0.14	1.63	0.09	-0.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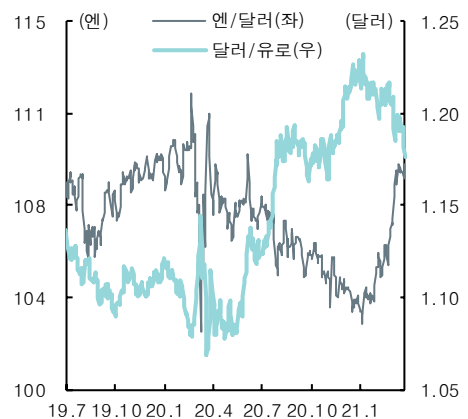
주가

	다우산업	니케이225	상하이종합	Euro Stoxx
'19년말	28,538.4	23,656.6	3,050.1	3,745.2
'20년말	30,606.5	27,444.2	3,473.1	3,552.6
2월말	30,932.4	28,966.0	3,509.1	3,636.4
03월 19일	32,628.0	29,792.1	3,404.7	3,837.0
03월 22일	32,731.2	29,174.2	3,443.4	3,833.8
03월 23일	32,423.2	28,995.9	3,411.5	3,827.0
03월 24일	32,420.1	28,405.5	3,367.1	3,832.6
03월 25일	32,619.5	28,729.9	3,363.6	3,832.6



환율/상품

	환율		상품	
	엔/달러	달러/유로	Dubai(\$/배럴)	Gold(\$/온스)
'19년말	108.66	1.122	67.3	1,523.1
'20년말	103.25	1.222	51.1	1,895.1
2월말	106.58	1.207	64.3	1,728.8
03월 19일	108.84	1.190	62.2	1,741.7
03월 22일	108.81	1.193	63.2	1,738.1
03월 23일	108.56	1.185	63.0	1,725.1
03월 24일	108.73	1.181	61.0	1,733.2
03월 25일	109.18	1.176	62.4	1,725.1



자료 : Bloomberg, 연합뉴스포맥스



하나금융포커스

제11권 7호

등록번호 서울중, 다00037

등록일자 2011년 3월 21일

2021년 3월 27일 인쇄

2021년 3월 29일 발행

발행인 박성호

편집인 윤병수

발행처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대표전화 2002-2200

홈페이지 www.hanaif.re.kr

인쇄 (주)광문당

본 지에 게재된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으로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www.hanaif.re.kr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하나금융포커스 제11권 7호

0453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Tel 2002-2200 Fax 2002-2610